



가정이 하나 되는 길, 경전이 말하는 화목한 가정 만들기

# 가족 부처로 섬기면 불국토가 '여기'

통계청이 구급 2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 2009'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 준다.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작년에는 20.1%로 급증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때문에 또 혼자 사는 노인이는 계속 늘었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 해체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어두운 이면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또는 부모사망으로 인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구가 2005년 기준으로 1995년보다 65%가 늘었다. 1인가구나 결혼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소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우선 공급 등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노인 가구 등을 부처처럼 모시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일은 가장 좋은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다 아닐 수 없다. 가족 해체의 정도가 너무나 빠른 오늘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 체득하고 실천해 보자.

## #가정 화목은 수행과 삶의 근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명언이 있다. 수신(修身)은 자기관리요, 제가(齊家)는 가정의 화목이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직장, 사회, 국가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뜻한다. 제가에서 수행하는 불자들에게는 가정의 화목이 개인 수행과 일, 보살행을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무량수경>에는 가족과 친척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해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 #효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

가정의 화목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내는 시부모님을, 남편은 장인장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부처님은 <중아함 선성경>에서 자식의 도리를 이렇게 알려주셨다.

"자식은 다섯 가지로 부모를 대해야 한다. 부모의 재물이 불어나게 해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불손하게 뜻을 어기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를 아무리 잘 봉양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는 일 보다 큰 공덕은 없다. 부처님께서 <부사의광경>에서 "음식이나 진귀한 보물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해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며 법보시를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부모님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편도 제시하셨다.

"만약 부모가 신심이 없거든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만약 계를 안 지키거든 계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만약 성질이 인색하거든 보시를 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자식이 이렇게 하면, 비로소 보은(報恩)이라 할 수 있다."(비나야율)

이와 같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인 동시에, 열반에 도달하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금강계주행경>은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智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 #부모는 자식을 모자람 없이 보살펴야

부처님은 <중아함 선성경>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다섯 가지의 도리를 이렇게 알려주셨다.



가족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가정을 수행공동체로 만드는 소중한 기회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뒤를 보살피며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빚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를 맞춰 결혼시켜 줘야 한다. 재물을 물려줘야 한다."

부처님은 아들 락울라를 출가시켜 교육시켰는데, 다른 제자들 보다 더욱 엄하게 가르쳤다. 락울라에게 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교육관이 '타율' 보다는 '자율'에 의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락울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즉 '이 일이 깨끗하고 옳은 일인가,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착한 일은 행할 것이며,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중아함 나온경)

##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 만사형통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함께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사랑일 것이다. 신혼 때는 누구나 평생 애인처럼, 도반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초발심(初發心) 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부부간의 신뢰와 존

중 그리고 상호이해 등이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백년해로의 전제조건임을 알면서도 뜻대로 안되는 게 부부간의 애정전선이다.

요즘처럼 남녀평등을 넘어선 여성상위시대에는 아내의 가족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 <중아함 선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다섯 가지 방편이 나온다.

"아내를 여여(여)여겨야 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장신구를 해주어야 한다. 집안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남편을 사랑하는 법'도 설하셨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남편이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애인 같고 친구 같고, 때로는 부모 같고 스승 같은 배우자는 500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나의 반쪽'이다. 서로에게 가장 큰 빛을 주고 받는 부부란 희유한 인연을 통해, 나란히 '의식의 진화'를 이루어가는 발전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남편이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애인 같고 친구 같고, 때로는 부모 같고 스승 같은 배우자는 500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나의 반쪽'이다. 서로에게 가장 큰 빛을 주고 받는 부부란 희유한 인연을 통해, 나란히 '의식의 진화'를 이루어가는 발전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 #가족은 도반, 가정은 수행공동체

"친족이야말로 으뜸가는 벗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 친족을 알고는 있지만, 지극한 애정으로 근본을 삼으며, 정성을 앞세우고 의를 뒤로 미루는 태도를 취해야 비로소 같이 살 수가 있다."(출요경)

가정을 수행의 터전이자 자아실현의 장으로 여긴다면 가족을 도반이자, 선지식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웃을 공경하기에 앞서 내 부모, 배우자, 자녀를 어른부처, 아기부처로 볼 줄 안다면 가정은 최고의 수행공동체가 아닐 수 없다. 가족 구성원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본래부처(本來佛)가 불심으로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는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곧바로 실현될 것이다. 김성우 기자

# 가정이 밝아야 세상도 밝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시절, 모든 것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조금 확대된 친족 그리고 나아가 마을은 서로 매우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운영되었으므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실로 컸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과 개인주의가 확대돼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퇴색되고 그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가족은 생명의 근원으로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가 없이는 온전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 자살, 폭력 등 사회 문제도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상당부분 가족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땅히 서로를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할 가족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그로 인해 마음속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때로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가족법회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연령대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그리고 생활주기별로 신혼기 부부, 자녀 양육기 부부, 은퇴기 부부, 노년기 부부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많은 사람에게서 실시될 수 있도록 중단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준비교실'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사찰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다행히 몇 년 전 불광사와 공동으로 '불교와 가정'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고, 조계사 등에서 아버지 교육, 청소년기 부모교육 등 본격적인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 가족법회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급

는 젊은 부모님이나 나이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적절한 독립을 방해하고 속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 경전에서 수차례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하고, 부모·자식 사이는 어떠해야 하며, 친족 간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다. 따라서 사찰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교적인 의미와 가족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며, 나아가 개별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 이웃을 돌보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법문과 강좌가 개설되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족법회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돼야 한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 가족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법회라 할 만한 곳은 극히 드물다. 단지 가족이 함께 법회를 참가한다고 그것을 가족법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들이 함께 자신들의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힘을 모아

일이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록 가족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므로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성품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무지와 세속적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가정은 수행공동체이고 가족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도반이 될 수 있다.

수행공동체로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이웃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자연스레 불교는 전파될 것이다.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나무량수경)



한주영  
지혜로운여성  
사무처장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주문당일배송

#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300대 한정판매

TS 7300 (1.2kW) = 68,000원 → 58,000원  
 TS 7200 (2.0kW) = 78,000원 → 68,000원  
 TS 7000 (3.0kW) = 88,000원 → 7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을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방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효과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팬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영숙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실내전체가 훈훈한  
 태성전기난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정말 좋네요!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  
 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특별할인가 58,000원

▶TS-7300 적용면적: 10.56㎡ (3.5방)방  
 열량/1.2kW · 사이즈/2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x1.2kWx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78,000원

▶TS-7000/WJ3000 적용면적: 24㎡ (7~10방)방  
 열량/3.0kW · 사이즈/26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x3.0kWx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68,000원

▶TS-7200/WJ2000 적용면적: 16.5㎡ (5방)방  
 열량/2.0kW · 사이즈/2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x2.0kWx8=1,12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强者!